



APEC/PECC KOREA NEWSLETTER



한국APEC연구컨소시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우. 137-747)
TEL : 3460-1096 FAX : 3460-1162 E-mail : shlee@kiep.go.kr

●발행인 : 李景台 ●편집인 : 金尙謙

Vol. 10, No. 4, 2008년 1월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 주요 논의 결과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의 주요 논의주제

- ◆ 다자무역체제 지원
 - 2008년에도 DDA의 협상진전 및 성공적 타결을 위해 APEC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페루 APEC에서 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함.
- ◆ 지역경제통합
 - 지역경제통합의 증진을 위한 단계적 방안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 향후 작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함.
-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APEC 무역원활화 2단계 행동계획(TFAP II)'을 적극 추진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역내 RTAs/FTAs 체결을 위한 '모델조치 작업'의 완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 ◆ 2008년 페루 APEC 역점 추진사항
 - APEC이 기존에 진행해오던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의 추진, TFAP II의 이행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활동의 촉진, 구조개혁의 진전, 반부패 및 투명성의 제고, 인간안보 강화, APEC 개혁 추진, ECOTECH의 강화 등은 페루 APEC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
 - 2008년 APEC 주제를 "아·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공약(A new Commit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Asia-Pacific)"으로 정함.

2008 페루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가 2007년 11월 29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었다. Gonzalo Gutierrez 2008년 SOM 의장 내정자(페루)와 Chris De Cure SOM 의장 대리(호주)의 공동주제로 한 이번 비공식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과 관련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이 무역투자위원회(CTI)를 중심으로 지역경제통합 보고서 상의 행동계획에 대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강조한 반면, 중국 및 ASEAN은 FTAAP가 장기적인 전망인 점을 고려하여 이보다는 보고로 목표 이행에 대한 평가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개도국들이 FTAAP 관련 준비작업의 급속한 진전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어, 앞으로 FTAAP 논의의 진행과 관련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2008 APEC은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 및 2008년 제1차 SOM 계기 정책대화 개최를 통해 국경 내 장벽 해소를 위한 작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의 주요 이슈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무역체제 지원

회원국들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DDA의 협상진전 및 성공적 타결을 위해 APEC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페루 APEC에서 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DDA가 그동안의 협상 그룹 및 주요 국가 간 논의에서 벗어나 WTO에서의 다자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2008년에는 미 대선이 있어 DDA 협상의 조기 타결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DDA 타결에 관한 정상 특별성명을 발표하는 등 APEC이 협상의 진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2. 지역경제통합

2007년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고위관리들에게 2008년 페루 정상회의까지 지역경제통합의 증진을 위한 단계적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번 회의에 고위관리들은 FTAAP의 범위와 목표 수준, 이행단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지만 개도국들은 FTAAP 관련 작업이 일부 선진국들에 의해 급속히 추진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역경제통합의 준비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SOM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APEC의 지역경제통합 작업 추진에 있어 FTAAP도 중요하지만, 보고르목표 달성 등의 기존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 관련 분야와의 균형 유지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회원국들은 2008년도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활동에 있어 2010년까지 아·태 지역 내 교역비용을 5% 추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APEC 무역원활화 2단계 행동계획(TFAP II)'을 적극 추진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역내 RTAs/FTAs 체결을 위한 '모델조치 작업'의 완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모델조치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2008년 내 최대한 많은 분야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밖에도 회원국들은 투자에 대한 국경 내 장벽이 여전히 높음에 주목하고, 추가적인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해 작년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투자원활화 행동계획(IFAP)' 등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4. 구조개혁

2007년 각료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의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회원국들은 구조개혁의 주요 요소, 추진상의 문제점 및 회원국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 각료회의에서 아·태 지역의 국가 간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경쟁 정책의 규제를 완화하며, 역내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회원국들은 2008년에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5. 경제기술협력

루이스 케사다(Luis Quesada)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SCE) 의장은 2008년도 ECOTECH 프로젝트 심의기준(policy criteria)을 승인하였다. 회원국들은 APEC 회의체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등 SCE의 2007년의 활동으로 인한 경제기술협력 분야에서의 진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08년에는 SCE의 정책적 역할 수행 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6. APEC 개혁

회원국들은 지난해 호주가 제안했던 전문직 사무국장제(fixed-term Executive Director) 도입의 구체 조건에 대한 논의를 가능한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7. 2008년 페루 APEC 핵심 주제

APEC이 기존에 진행해오던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의 추진, TFAP II의 이행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활동의 촉진, 구조개혁의 진전, 반부패 및 투명성의 제고, 인간안보 강화, APEC 개혁 추진, ECOTECH의 강화 등은 페루 APEC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금번 APEC의 주제를 "아·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공약(A new Commit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Asia-Pacific)"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기존의 APEC의 능력배양 사업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회원국들은 2008년 페루 APEC에서 (1) 아·태 공동체 건설 과정에의 타 회원국의 참여 확대,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 및 국제 금융기구간의 협력 증진, (3) 역내 주요 이슈들에(에너지 안보, 인간 안보, 기후변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 대한 포괄적 접근을 위해 구성원과 경제 성장에 대한 논의의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향후행사

APEC SOM I Meeting and Related Meetings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2008. 2. 21~3. 2 페루 리마)

연락처 : 장호승 외무관 /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

Tel : 2100-7657 Fax : 2100-7980

E-mail : hschang99@mofat.go.kr

최근행사

PEC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ers in the Asia-Pacific

(2007. 10. 15~16, 서울 조선호텔)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10월 15-16일 “아태지역 내 국제금융센터 경쟁의 전개전망과 기대효과 및 문제점 - 그리고 지역 금융발전과 경제공동체 구축에 대한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ers in the Asia-Pacific: Prospects, Benefits, and Costs - Stumbling Blocks or Building Blocks towards a Regional Financial Community?)”을 주제로 PECC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금번 컨퍼런스는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사 아시아지역 회장, 사이먼 쿠퍼 HSBC은행장, 휴 패트릭 미 컬럼비아대학 교수 등 저명한 국제금융전문가 및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하여 홍콩, 싱가포르, 동경, 시드니, 상하이, 웰링턴 및 서울의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과 추진현황을 조사 및 평가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경쟁이 역내 경제 및 금융 통합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기조연설(Keynote Address)] 아태지역 국제금융센터 경쟁의 조건과 전망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사 아시아지역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아태지역 내 국제금융센터 경쟁의 조건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특히 금융센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원활화와 표준화에 달려있음을 지적하고, 자본의 이동성과 기준의 통일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는 각각의 금융센터가 특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된다면 아시아 지역 내에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다수의 국제금융센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뉴욕과 런던이 경쟁도시지만 서로 협력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부] 금융센터별 비전과 전략 및 현황

세션1: 홍콩과 싱가포르

지저스 시드 링난대학교 교수는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in East Asia and Beyond: A Perspective from Hong Kong’이란 주제로 국제금융센터의 섹터별 진행현황을 살펴보고, 국제금융센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법률, 회계, 보험 등 타 분야의 연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의 국제금융센터가 각기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금융센터 간 협력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특정 도시가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규모의 금융센터들이 협력하고 통합될 때 아시아 지역에도 세계적인 금융센터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기준의 통일과 이에 따른 공통된 표준의 적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탄 키기압 싱가포르폴리텍대학교 교수는 ‘Singapore as a Leading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 Annual Update on ISEAS-NTU Financial Reform and Liberalization of ASEAN+5 Economics’란 주제로 금융 개혁과 자유화가 ASEAN+5 국가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싱가포르가 갖는 선도적인 센터로서의 의미 및 이러한 센터가 되기 위한 요인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싱가포르가 긍정적인 금융센터로 발전함에 있어 정부의 활동, 모국어인 영어, 국제공항 등의 배경들을 설명하였다.

세션2: 동경과 시드니

시라이 사유리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Promoting Tokyo as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란 주제로 일본의 전반적인 경제현황과 1990년대의 금융 빅뱅을 짚어보고 다각도에서 일본의 금융시장 현황을 발표한 뒤 현재 일본 정부의 금융 비전을 그려보았다. 1996년 이후 일본식 금융 빅뱅으로 인해 금융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시장의 규모에 비해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일본 정부에 의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비전은 모두 제시되어 있으므로 가

장 핵심적인 것은 보수적인 일본 시민과 금융센터를 설득시켜 생각을 전환시키고 금융통합을 지향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니콜라스 그루엔 래터럴이코노믹스 연구소 대표는 'Australia's Future as a Financial Exporter - Regulatory Lessons from the Financial Entrepots' 이라는 주제로 호주의 펀드 매니지먼트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 서비스 수출 전망을 살펴보고 있다. 우수한 금융기관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금융 서비스 수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를 하나의 서비스로 인식하고 정부의 복잡한 조세 구조를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을 위해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션3: 상하이, 웰링턴 및 서울

쉬 밉치 상하이 사회과학아카데미 교수는 'Building Shangh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Strategic Targe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라는 주제로 상하이를 국제금융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과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상하이는 금융센터로서의 기본적 요건을 많이 갖추었지만 행정관련 통제와 시장 메커니즘의 부족, 베이징이 더 중요한 금융센터라고 여기는 인식, 법률 등의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structure)의 부족, 그리고 부족한 인적자원과 행정서비스 등이 국제금융센터 발전에 장벽과 과제이며 시장 메커니즘과 개방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규제 조정을 실천하여 2020년 국제금융센터가 되는 것이 상하이의 목표라고 설명하였다.

로저 보우덴 빅토리아대학교 교수는 'The Kiwi that had to fly: Path Dependence and Evolutionary Niches among International Finance Centers' 라는 제목으로 뉴질랜드 웰링턴의 독특한 경제 구조의 특성과 배경을 설명하고 국제금융센터가 되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웰링턴이 과거 금융완화를 통해 농업을 중심으로 독특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발달되어 특화된 니치 시장을 구성하게 되었고 균형이 깨진 경제와 변화 폭이 큰 통화 등으로 인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특성화된 특수성을 언급하였다.

김한수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Building a Government

Lead Financial Hub' 라는 주제로 한국의 경쟁력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금융허브가 추진되었으며 국내 중심의 금융시장에서 국제 금융허브로 2003년 정책 초점이 바뀌어 자산운용사업 촉진, 금융시장의 선진화, 지역특화를 위한 금융채널 개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2010년 아시아 주요 금융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의 금융 규제환경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법 완화와 비용 절감,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결론적으로 한국의 금융허브는 민간이 정부의 주도를 따라가는 문화를 형성하여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부] 아태지역 내 국제금융센터 경쟁의 전개전망과 기대효과 및 문제점

세션4: 아태지역 내 국제금융센터 경쟁 - 전개전망과 예상 효과 및 정책과제

데이비드 코웬 IMF 선임연구원은 'Recent Trends and Scope for Development' 란 주제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센터를 둘러싼 경쟁이 급격한 변동에 따른 불안정을 낮추고 개혁을 촉진시켜 국경간 자본의 흐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아시아의 거시적 지표들이 금융센터의 활성화를 뒷받침한다고 보며 그 근거로서 높은 민간저축, 아시아로의 자본유출입의 증가, 안정된 외환보유고 및 재정 상태를 들었다.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자본의 확대현상과 이의 유치가 아시아 금융 시장에 있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향후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투자자의 제도적 기반 조성, 기업 경영의 개선, 시장참가 촉진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및 위험관리 개선을 위한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 국장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과 그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하였다.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이 금융센터로 성장할 가능성의 기반으로서 높은 경제성장, 높은 저축률과 부의 축적, 금융

자유화/혁신 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아직 아시아 역내에는 금융시장의 통합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 아시아 시장 내 존재하는 위험과 금융시장의 낮은 발전정도와 규제 그리고 역외 투자자들의 강세를 제시하였다. 양차원의 금융 통합과정이 상호보완적 관계일 수 있으며, 협력에 바탕을 둔 경쟁이 각 국내 금융 시장으로 하여금 비교우위로의 전문화를 도와 비영합적 생산을 가능하게 함을 주장하였다.

방송규 한국매쿼리그룹 상무는 금융기관 간 협력 및 금융 커뮤니티 형성에서 오는 이점을 강조하며 금융센터보다는 양질의 금융 기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과 금융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지역적 금융 기관의 협력과 경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국내 기업의 혁신, 세계 시장진입에 대한 유인 제공, 기업구조 �신, 실적주의 장려 등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이점을 강조하는 한편 경쟁의 긍정적 사례로서 맥쿼리 기업의 성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금융센터의 성장을 경쟁, 절박함, 성공, 세계적 수준의 금융기관 양성, 금융 센터의 대두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하였다.

종합 토론에서는 앞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제금융센터 경쟁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패널들의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결론 세션에서 이틀간의 회의 내용이 정리되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의 목표가 국제금융센터 논의의 지지기반을 만드는 한편 그 시사점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는 데 있음을 상기하고, 국제금융센터를 둘러싼 경쟁이 야기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며 이를 위해선 정부 간 정책적 조율이 필요함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본 회의 결과를 각국에 정책 제안으로 제출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동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2008년 초 출판될 예정이다.

PECC Executive Committee Meeting

(2007. 12. 13~14, 싱가포르)

PECC 집행위원회가 12월 13-1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PECC 집행위원회는 상임위원회하에서 PECC의 세부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Task Forces의 제안 및 선정, 연구 프로그램 설정 및 평가, 국제사무국 활동 관리, 재정 사용 감독 등을 수행하며,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미국과 당해연도 APEC 의장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금번 회의에는 양수길 KOPEC 회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에서 참석하여 집행위원들과 현재 진행 중인 PECC 중점 프로젝트 및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PBEC, 싱가포르 상공회의소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업계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각국 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향후 위원회 간 정보교류와 협력에 더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행사

PECC 태평양경제전망 구조 회의 (PEO Structure Specialists Meeting)

(2008. 3. 16~17 일본 오사카)

PECC 태평양경제전망회의 (PEO Forecasters/SOTR Meeting)

(2008. 3. 18~19 일본 오사카)

최근행사

KOPEC 국제세미나 아태지역기구구조의 설계-주요 동아시아 국들의 입장

(2007. 11. 22.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아태지역기구 구조의 설계-주요 동아시아 국들의 입장(Regional Architecture for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East Asian Perspectives)'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는 유수프 와난디 인도네시아 CSIS 원장 겸 Jakarta Post 발행인, 장윤령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부장, 후쿠시마 아키코 일본국제교류기금 선임연구위원, 박영철 서울대학교 교수 겸 국제금융센터 소장,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이 연사로 참여하여 점차 복잡해지는 역내 지역협력관계구도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참석자들과 논의하였다. 동 세미나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2008년 초 출판될 예정이다.

07년도 KOPEC 아태전략포럼 제6차 회의

(2007. 12. 6.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아·태지역협력의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허경욱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을 초청하여 2007년도 제6차 아·태전략포럼을 지난 12월 6일 개최하였다.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은 APEC, ASEAN+1, ASEAN+3, EAS 등 아태지역협력에 대한 여러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아시아 지역통합논의에서의 향후 과제로 1) 아세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2) 동아시아 통합논의에서 미국의 포함 여부와 포함 한다면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3)이질적 발전단계에 있는 다양한 국가들을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통합할 것인지, 4)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추진할 것인지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의 부상 등으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우려하고 적극적인 FTA 체결과, 중국과 일본의 가교역할을 통해 우리나라 교섭수단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허경욱 국제업무정책관은 아태지역금융통화협력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서의 제도화, 기구화 논의의 진전 사항, 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ABMI)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CMI의 다자화 논의를 통해 공동펀드 설립에 원칙적으로 합의되었으며 현재 펀드의 재원조달, 자금지원방식, 의사결정 및 감시체제 방안 등을 협의 중이며, 우리나라는 특히 투표권과 직결되는 재원조달 방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ABMI는 신용보증을 위한 기구와 역내 결제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고 있으며 동 논의와 관련해서 2~3개의 기구가 설립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각국의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최소 하나의 기구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제35차 KOPEC 이사회

(2007. 12. 10. 서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제35차 이사회를 12월 10일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2008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7년도 주요사업실적과 제32차 이사회 및 제20차 총회에서 의결된 경영개선(안)에 의거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신규 이사기관으로 가입하였음을 보고받았다. 참석자들은 사업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건의하였고 특히 국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이사기관과의 공동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향후행사

08년도 KOPEC 아태전략포럼 제1차 회의

(2008. 1. 24. 서울)

▶ 회의 관련 문의사항이나 자료는 KOPEC 사무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KOPEC 사무국

Tel: 02-3460-1240~3

Fax: 02-3460-1244

E-mail: kopecsec@kopec.or.kr

출판물



- ◆ Understanding International Energy Initiatives in the APEC Region Scope and Elements, 2007
- ◆ Urban Transport Energy Use in the APEC Region, 2007
- ◆ Implementation of the APEC Action Plan on Prevention and Response to Avian and Influenza Pandemics: Progress Review and Building Capacity for Future Work, June 2007
- ◆ APEC High-Level Public-Private Policy Dialogue on the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Melbourne: 26-27 April 2007
- ◆ APEC e-Trade and Supply Chain Management-Presentations, March 2007
- ◆ APEC Symposium on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May 2007
- ◆ Alliance in Practice: Building the Core of Trade Promotion, March 2007
- ◆ Liberalisation of Air Services in the APEC Region, 1995-2005, January 2007
- ◆ Proceedings of Capacity Building Seminar on Good Agricultural Practices in APEC, December 2006
- ◆ Development of "APEC Guidance for Electronic Commerce", Using the Best Practices of E-government Procurement Systems, December 2006
- ◆ 2006 APEC Perspectives
- ◆ 2006 Key APEC Documents
- ◆ Driving Forward a Prosperous and Harmonized APEC Community, November 2006
- ◆ 2006 APEC Economic Policy Report, November 2006
- ◆ 2006 APEC Economic Outlook
- ◆ Evaluation of Access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ased Lines in the APEC Region (November 2006)
- ◆ 2006 Report of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APEC Secretariat to the 18th APEC Ministerial Meeting (November 2006)
- ◆ APEC Symposium on Socio-Economic Disparity-Proceedings (November 2006)
- ◆ Workshop on Effective Strategies for IPR Public Education-Proceedings (November 2006)
- ◆ APEC IPR Public Education and Awareness Platform (November 2006)
- ◆ Enhancing Investment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Stage 1): Reducing Barriers to Investment across APEC to Lift Growth and Lower Poverty (November 2006)
- ◆ APEC Review on Counter-Terrorism, 2001-2006 (November 2006)
- ◆ APEC Customs-Business Partnership Programmes, September 2006
- ◆ Public-Private Dialogue on Trade Facilitation-Proceedings, May 2006
- ◆ 4th APEC SOM Policy Dialogue on RTAs/FTAs, May 2006
- ◆ Handbook on Prepackaged Goods, Part of the APEC/APLMF Training Courses in Legal Metrology July 2006
-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Strategies, September 2006



- ◆ State of the Region, 2007
- ◆ FTAAP Regional and Feasibility, 2007
- ◆ Guidelines for Effective Public Private Partnerships, 2007
- ◆ State of the Region, 2006
- ◆ The Evolution of PECC: The First 25 Years, 2005
- ◆ Towards a Pacific Community: Renewing the Commitment (proceedings of PECCXVI), 2005

- Finance

- ◆ Impediments to Cross-Border Investment in Asian Bonds, PECC & ISEAS, 2005
- ◆ Developing Asia Bond Markets, Asian Pacific Press, 2004
- ◆ 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in Asia-Pacific and the Western Hemisphere, 2004
- ◆ Finance Forum CD: Issues and Challenges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2004
- ◆ ISSUES@PECC 시리즈
 - Developing Bond Markets in the APEC Region: Need and Agenda for Public-Private Sector Partnership, 2004
 - Strengthening Domestic Financial Systems in APEC: PECC Scorecard Initiative for Tracking Progress in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n Banks, 2004
 - Strengthening Domestic Financial Systems in APEC: Recommendation of Launching an APEC Peer Review Process Assessing Progress on Domestic Reform, 2004
 -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 Interim Assessment and Challenges to APEC, 2004
 - Developing an Asian Bond Market: Rationale, Concerns, and Roadmap, 2004

- Trade

- ◆ Study on the Mutually Supportive Advancement of APEC's Trade Facilitation and Secure Trade Goals post September 11, 2005
- ◆ Perspectives on Services Regulatory Issues (e-publication), 2004
- ◆ Perspectives on the Services - Investment Nexus (e-publication), 2004

- Community Building

- ◆ Implementing the e-APEC Strategy, 2004

- Outlooks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5-2006: A Revolution in Food Retailing, 2005
-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5-06, 2005
-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4-05, 2004
-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4-2005: The Role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a Seamless Food System, 2004

APEC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E-mail : kimhs@kiep.go.kr
Tel : 02-3460-1096
Fax : 02-3460-1162

APEC Secretariat
E-mail : jt@apec.org
Tel : 65-6775-6013
Fax : 65-6775-6012

PECC, KOPEC 회의 관련 자료 및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Tel: 02-3460-1243
Fax: 02-3460-1244
E-mail: kopecsec@kopec.or.kr

APEC HOME PAGE
<http://www.apec.org>
PECC HOME PAGE
<http://www.pecc.org>

향후행사일정

DATES AND VENUES	APEC EVENTS	PECC EVENTS
March 2008		
21 Feb-2 Mar Lima, Peru	SOM I and Related Meetings	
2-7 Iquitos, Peru	Energy Working Group	
16-17 Osaka, Japan		PEO Structure Specialists Meeting
18-19 Osaka, Japan		PEO Forecasters/SOTR Meeting